

교류(交流)의 중심에 『방송과기술』이 있습니다

+ 최기창 2014년도 신입 방송과기술 편집장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밝았습니다.

말의 해입니다.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를, 양기가 가득한 상태라 하여 정오(正午)라 합니다. 말의 활동적인 모습에서 우리 조상들은 가장 충만한 에너지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양기가 넘치는 갑오년, 여러분 모두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방송과기술' 신입 편집장 최기창입니다.

2013년 '방송과기술' 이 협회원들께 정보의 마당을 충실히 제공하였듯이, 올해에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방송과기술' 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편집위원을 포함한 편집부 모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HD로 전환된 지금도 우리는 더 최신의 방송기술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몰고 온 3D의 광풍을 거쳐, UHDTV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MMS 다채널, OHTV 등 다양한 방송 기술이 우리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방송기술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TV 스튜디오와 라디오 스튜디오, 더빙실, 편집실, 주조정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영상, 음향, 조명 송출기술들...

이 모든 게 소홀히 할 수 없는 방송기술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방송기술에 치우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유대감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조직이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방송과기술'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주도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기술 습득에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 근간이 되는 제작기술 소개를 가벼이 보지 않겠으며,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다는 냄새가 나도록 인간적인 교류에 편집의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2014년도 '방송과기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Zoom In Focus, Field Issue 입니다.

방송계의 정책과 이슈를 정리하고, 현존하는 방송계의 과제와 대안에 대해 협회원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록하여 협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방송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함으로써 협회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각종 전시회나 세미나 소식을 정리해 협회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Broad Sharing 입니다.

일상적인 소소함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방송기술의 딱딱함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 있는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동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고 있는 지 취미, 특기, 건강 등을 두루 망라하여 단지 방송의 냄새만 풍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 부서나 동아리를 소개함으로써 직무와 방송 제작 환경, 선배나 동료, 후배를 이해할 수 있는 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합회의 협회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Enterprise News, Essential To ENG, Back to Basic, Expert Know-How, Tech&Trend, Tutorial 입니다.

방송기술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전자, 디스플레이 등 다방면에 있어서 협회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주제로 삼아 원고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송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협회원들이 방송국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제작의 노하우는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요즘, 이러한 신기술이 방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원들의 기고와 방송장비 제조사, 기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2014년 1월호부터 표지디자인을 좀 더 산뜻하게 가고자 합니다. 2009년 전면 컬러화를 시작하면서 매월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균일한 바탕에 컬러를 강조한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한층 밝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되며, 군데군데 바뀐 곳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해의 시작에는 언제나 새로운 계획과 다짐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새로운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방송과기술'이 보다 친근감 있고, 정보가 살아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